

# WTSA-20 국제회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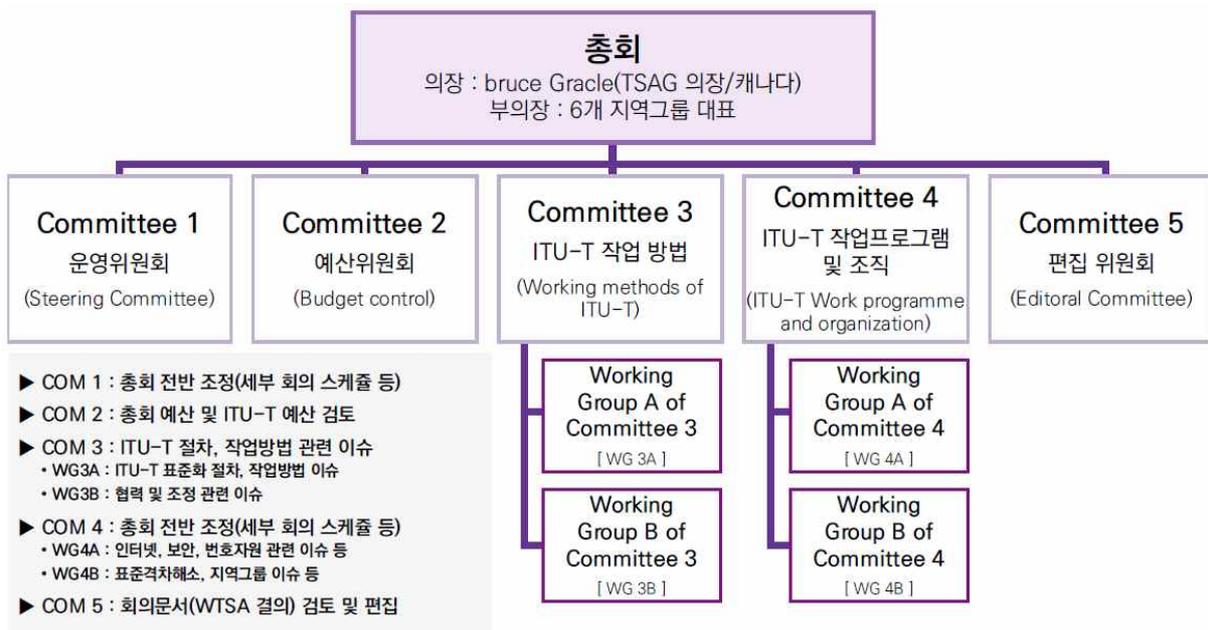
이경희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팀장  
 구경철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이강해 TTA 시용합표준단 단장  
 김기훈 TTA 시표준팀 팀장  
 이민아 TTA 시용합표준단 책임연구원

## 1. 머리말

전기통신표준화총회(WTSA, World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ssembly)는 4년마다 개최되는 ITU-T 분야의 총회로, ITU-T의 향후 활동 방향을 제시하는 결의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ITU-T 작업방법 등을 정의한 A 시리즈 권고 제·개정, 연구반 구조조정, 연구과제(Question) 승인 등을 결정한다. 이번 총회는 2022년 3월 1일부터 9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총회는 본래 2020년 인도 하이데라바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이 연기되고 장소도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순천향대, KT 등에서 25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원격참석 2명).

WTSA-20 회의는 5개의 COM(Committee) 및 산하 4개의 WG(Working Group)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나라는 WG4A 의장(ETRI 김형준 소장)과 WG3A 부의장(순천향대 염홍열 교수)을 수임, 성공적 회의 개최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림 1] WTSA-20 구조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ITU 회의 중 최초로 대면으로 개최된 WTSA-20은 국가별 방역 지침, 코로나 확산 추세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긴장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오랜만의 대면 회의로 개최되어 이전 총회보다 2배 가까운 12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팬데믹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원격 참가자도 4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현재 ITU 규정에 따르면 최종 결정 권한은 대면으로 참석한 국가에게만 있고, 실질적 합의는 오프라인에서 이뤄졌으며, 애드혹 등으로 회의가 하루 평균 12시간 진행되는 등 원격참석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 2. 주요 회의 내용

### 2.1 ITU-T 의장단 선출

2016년 WTSA-16에서 TSAG 부의장은 지역그룹별 2석, 연구반 부의장은 지역그룹별<sup>1)</sup> 3석으로 제한하도록 의장단 임명에 관한 결의가 개정되었고, 상위 회의인 전권회의(PP)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결의가 제정됨에 따라, 금번 WTSA-20에서 이러한 규정이 처음 적용되었다. 특히 ITU-T 활동이 매우 활발한 아시아 태평양지역(APT)에서 다수의 부의장 후보가 제출됨에 따라 각국별 의석 확보를 위한 노력이 치열했다. 우리나라는 12개 모든 그룹에 후보를 제출하였으나 지역 및 국가별 균형이라는 기준에 따른 협의 결과 전체 128석 중 총 10석을 확보하였다. 이는 세계 2위의 의장단 규모로서 향후 ITU-T 국제표준화를 주도하는데 큰 발판이 되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특히 SG20에 신규 의장으로 선출됨에 따라 SG17에 이어 2석의 의장석을 확보하였다.

그 외 의장석은 일본(2명), 사우디아라비아(1명), 중국(1명), 프랑스(1명), 영국(1명), 캐나다(1명), 이집트(1명), 멕시코(1명), 인도(1명)에서 수임하였다.

<표 1> 우리나라 의장단 선출 결과

No.	의석구분	ITU-T 연구반	소속	성명	비고
1	의장 (2석)	SG17(정보보호)	순천향대학교	염흥열	연임
2		SG20(IoT 및 스마트시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형준	신규
3	부의장 (8석)	SG2(전기통신관리, 운용)	KT	이인섭	신규
4		SG5(ICT와 순환경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병찬	신규
5		SG9(광대역 케이블 TV)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태균	연임
6		SG11(신호방식, 시험명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고남석	신규
7		SG12(품질)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성호	연임
8		SG13(미래네트워크)	KT	김형수	연임
9		SG15(광전송)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태식	신규
10		SG16(멀티미디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강신각	신규

### 2.2 WTSA 결의 제·개정 및 폐지

WTSA 결의는 차기 연구회기 동안 ITU-T의 운영 절차, 표준화 활동 프로그램 방향성 등을 담은 규정으로 금번 회의에는 신규 결의 제안 13건, 개정 44건, 폐지 10건, 유지 10건 등이 제안되어 논의하였다.

1) 아시아태평양, 미주, 유럽, 아랍, 아프리카 및 구소련연방 등 총 6개의 지역그룹

우리나라는 APT 공동기고서로 1건의 결의 제정 및 3건의 결의 개정을 제안하여 반영시키는 등 논의를 주도하였다. 특히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TU-T 역할' 신규 결의 제안은, 아랍과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유사한 신규 결의를 제안함에 따라 이를 통합하여 하나의 결의로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우리나라는 결의 제정을 위한 초안 개발 그룹 의장(ETRI 차흥기 선임)을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결의 50(순천향대 염홍열 교수), 55 및 89(순천대 강신원 교수)의 개정 초안 개발 과정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논의 결과 개정안은 최종 반영되었으며, 팬데믹 신규 결의는 ITU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공감하여 오는 9월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PP-22에 제안하기로 결정됐다. 그 외 신규 결의로 제안된 결의 중 '아프리카 공통 긴급 전화번호'와 '연구반 조직 개편 고려사항' 단 2건만이 제정되었으며, 아랍 지역에서 제안한 '인공지능', 미주지역/유럽지역에서 제안한 '산업계 참여 증진' 등은 부결되었다. '인공지능' 신규 결의 제안은 ITU-T의 인공지능 관련 표준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으나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은 이미 모든 연구반에서 인공지능이 적용된 통신/ICT 영역의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인공지능 기술 표준화는 ITU의 업무영역이 아니라는 사유 등으로 반대하여 부결되었다. '산업계 참여 증진' 신규 결의 제안은 아랍지역과 러시아 등에서 반대하여 기존 결의 68(ITU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에서 산업계의 진화하는 역할)에 내용을 반영하고 이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추진되었다. 그러나 최종 논의 결과, 기존 ITU 활동으로도 산업계 참여가 촉진 및 증진되고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으로 결의 개정마저도 무산되었다.

<표 3> 신규 결의 제정 제안 현황 및 결과

구분	제안자	제목	결과	
결의	신규 1	아프리카지역	아프리카의 공통 긴급 전화번호 제정	제정
결의	신규 2	아랍지역	ITU-T 연구반 조직 개편 고려사항 제정	제정
결의	신규 3	아태지역, 아랍지역, 아프리카지역	글로벌 팬데믹 확산 방지를 위한 ICT 활용 증진에 대한 ITU-T의 역할	PP-22에 제출
결의	신규 4	미주지역	더욱 효과적, 효율적이며, 목적에 맞고, 포괄적인 ITU 표준화 부문 지향	부결
결의	신규 5	미주지역, 유럽지역	ITU-T의 작업에 있어서 산업계 참여의 중요성 부결	부결
결의	신규 6	미주지역	ITU-T 활동시 동등한 입장에서의 대면 및 가상 옵션 사용 부결	부결
결의	신규 7	유럽지역	SMART(Scientific Monitoring And Reliable Telecommunications) 케이블 시스템	부결
결의	신규 8	아랍지역	인공지능	부결
결의	신규 9	유럽지역	ITU-T에서의 기계 적용이 가능하고 판독 가능하며, 전송 가능한(SMART) 표준 개발	부결
결의	신규 10	아랍지역	개방형 액세스 네트워크 표준화를 포함한 개방형 네트워크 개발	부결
결의	신규 11	구소련연방 지역	MSISDN(Mobile Station International Subscriber Directory Number) 및 IMSI(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정의를 위한 16진수 활용	부결

그 외 결의 1(ITU-T 작업절차)은 연구과제(Question) 신설·개정 시 정책·규제적 함의가 있는 경우 해당 연구반 결정이 아닌 TAP<sup>2)</sup>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전체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TSAG의 연구과제 최종 승인 권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결의 54(지역그룹의 설립과 지원)는 미주, 유럽이 연구반 지역그룹<sup>3)</sup>에 다른 지역의 회원(국가, 부문회원 등)이 참관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결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해당 그룹의 초청 기반으로만 참석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 아랍,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대로 참가 자격은 유지되고 그 외 내용만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등은 아랍, 아프리카가 제안해 반영된 결의 조항 6번<sup>4)</sup>이 회원의 회의 참가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현장·협약과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이를 반대하는 성명을 회의 보고서에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결의 외 TSAG에서 담당하고 있는 A 시리즈 권고(A.1, ITU-T 작업방법 등) 개정도 논의가 추진되었으나 이견이 많은 이슈(A.7, 포커스 그룹)는 시간 관계상 차기 TSAG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단 A.5(타 기구 문서 참조인용)는 참조인용 대상 기관 자격을 검증할 때, 연구반/작업반 회의록에 해당 내용 문서화 권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되었고 A.25(타 기관 간 텍스트 준용)도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개정되었다. A.8(AAP, 대체 승인 절차)은 권고안 회람시 제안된 의견 검토 및 해결을 위한 서식 등이 추가되어 개정되었다.

### 2.3 러시아 의장단 선출 이슈

금번 WTSA-20에서는 일반적인 총회 이슈 외에 특별하게 논의된 이슈가 있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발한 국가들이 WTSA-20 위원회 의장단 및 ITU-T 연구반 의장단에 모든 러시아 후보 임명을 반대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EU 27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호주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및 UN 헌장을 위반하였음을 규탄하며 WTSA-20 위원회 의장단 및 ITU-T 연구반 의장단에 러시아 후보 임명<sup>5)</sup>을 반대하였고 우리나라도 이에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표준 기술을 논의하는 ITU-T와는 무관한 이슈로, ITU-T 의장단은 전문성 등에 기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으나 폐회 총회에서 WTSA-20 의장(캐나다)은 러시아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의장단 후보를 승인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러시아, 중국, 벨라루스, 쿠바, 시리아는 반발하였다. 특히 러시아가 투표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함에 따라, WTSA-20 의장의 제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었다. ITU 규정에 따라 투표는 물리적으로 참석한 국가만이 각 1표씩을 행사할 수 있고, 참석하지 못한 국가는 타 국가에 투표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투표자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승인될 수 있다.

투표 권한을 위임한 국가까지 총 120개국이 투표 자격이 있었고 최종 100개국이 투표에 참여해 53개국이 찬성, 19개국이 반대했으며 28개국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원안대로 러시아 후

2) 정책 및 규제적 함의가 있는 권고가 따르는 일반적인 권고 승인 절차(TAP, Traditional Approval Process)로서, 1개국의 반대가 있어도 권고 채택 불가

3) 지역 요구사항에 기반한 표준화 활동 장려를 위해 연구반 산하에 지역별 그룹 설립 가능

4) 지역그룹 회의에 타 지역 회원 참여는 제한되어야 하며, 전문가 초청 가능

5) 러시아는 SG11 의장, TSAG, SG2, SG3, SG17, SG20, SCV(용어) 부의장 후보와, WTSA-20 총회 부의장, COM 5(편집위원회) 부의장에 후보를 제출함

보는 모두 선출되지 않았으며 러시아도 결과를 수용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에 대한 규탄 성명서 발표 (출처: ITU)>



<투표 현장>

[그림 2] ITU 총회에서의 러시아 침공 규탄 성명서 발표 장면과 러시아 의장단 후보 관련 투표 장면

### 3. 맺음말

우리나라는 2019년 12월, 한국ITU연구위원회 산하에 WTSA-20 대응준비반을 구성하여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이슈 분석 및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등 철저히 준비를 갖추고 회의에 참석했다. 그 결과, 디지털 전환 핵심 기술인 정보보호, IoT/스마트시티 분야 의장을 포함한 총 10명(의장 2명, 부의장 8명)의 의장단에 진출했다. 특히 에디터, 라포처, 작업반(WP) 의장단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확보한 경쟁력 있는 전문가들이 연구반 의장단에 대거 진출하면서 ITU-T 분야 세계 2위 의장국으로 발돋움, 차기 회기(2022년-2024년)에 우리나라의 입지와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CT 기술 기반의 코로나 대응을 위한 팬데믹 신규 결의를 제정하고, 주요 보안 기술을 포함하도록 사이버보안 결의 개정을 제안하는 등 ITU-T 주요 기술에 대한 표준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표준화 추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WTSA(WTSA-24)는 2024년 하반기,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연구반 구조조정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분석과 대응, ITU-T 주요 기술에 대한 주도권 확대를 위해 관련 결의 분석 및 기고 활동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3년부터 국내 대응준비반을 구성하여 국제 회의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표준 전문가 및 의장단 양성 교육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 출처: TTA 저널 제200호